

전남도, 취약계층 지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확대

서비스 대상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포함

향우회·기업·단체 서포터즈 기동대 신설

전남도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위기 가구를 발굴해 지원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 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

와 차상위계층에서 기초연금수급자까지 포함토록 해 30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15억원을 들여 2970가구에 소규모 주택수리 재료비,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20억원으로 늘려 397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방, 안전 등 전문 서비스 제공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실질적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기관별 기동대도 운영한다.

후원 확대를 위해 향우회, 기업, 단체 대상 서포터즈 기동대를 신설하고 자원봉사센터, 전남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활용한 공동 서비스도 제공한다.

참여자들의 사기 진작과 자금심 고취를 위해 기동대원과 협력기관 표창 등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복지기동대 공동 브랜드도 개발할 계획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복지기동대는 제도권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를 주로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며 “지원 계층을 확대해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등 도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공약사업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지난 2년 동안 사회취약계층의 7141가구에 23억1800만원을 지원했다. 또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8406가구에 15억8000만원을 추가 지원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도움을 바라는 서비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이·통·반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김정환기자



영광군, 마음건강주치의 서비스 운영

매주 월요일 도동휴면시아 커뮤니티센터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영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편안하게 상담을 받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월부터 영광읍 도동휴면시아 커뮤니티센터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에 마음건강주치의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마음건강주치의’는 군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위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우울, 불안, 정신건강 문제 상담 등 치료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고 있다.

마음건강주치의의 서비스를 이용한 대

상자는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가 생겨 상담을 통하여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광군민이면 누구나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전 전화예약(영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061-350-5666)접수를 받아 상담할 수 있다.

관계자는 ‘마음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만성화를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영암 금정면, 무료급식 대체식 전달 및 안부 모니터링 시행

경로식당 운영하지 못해 결식 우려되는 어르신 50여 명에게 대체식 전달



영암군 금정면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경로식당을 운영하지 못해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 50여 명에게 대체식을 전달했다.

금정면은 대체식 서비스와 함께 건강 악화나 나홀로 식사로 인한 사회적 고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안부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다.

대체식을 전달받은 홍○○(79세) 어르신은 “바쁜 업무에도 우리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주고 안부를 살펴주시니 너무 고맙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이영주 금정면장은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 가운데 결식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소외된 어르신들이 보다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여수시치매안심센터, 고령운전자 치매선별검사 무료 지원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시 ‘인지선별검사’ 제출 의무화

여수시는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에 필요한 치매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정기적성검사(갱신) 경과일 이전에 인지선별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는 여수시치매안심센터(봉강동 소재)를 방문하면 인지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기관 제출용 결과지를 발급받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치매안심센터(☎ 061-659-5440)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인지선별검사 무료 지원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조기검진사업뿐만 아니라 치매검진비,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치매치료관리비, 조호물품 지원 등 다양한 치매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